



무등산 눈꽃 산행 17일 겨울 산행에 나선 등산객들이 눈꽃 핀 등산로를 따라 무등산 정상으로 오르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적설량은 담양이 13.0cm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어 영광 12.0cm, 장성 11.5cm, 광주 9.9cm, 곡성 7.5cm, 함평 6.0cm 등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공무원교육원 이진지 강진군 도암면 최종 선정

전남도 내 16개 시·군이 치열한 유치경쟁을 펼쳤던 전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이진지로 강진군 도암면이 최종 선정됐다. 전남도공무원교육원 후보지 평가위원회(위원장 고일두 서울과기대 교수)는 17일 전남도청에서 21개 후보지에 대한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강진군 도암면' 지역을 이진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고 위원장은 "평가 결과 21곳 평가 대상지 가운데 강진군 도암면 지역이 총점 84.33점, 장흥군 안양면 80.93점, 보성군 차박물관 79.6점, 곡성군 죽곡면 74.65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진군 도암면 지역은 평가 항목 5개 분야 가운데 균형발전 기여도, 교육환경, 개발용이도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 접근성, 이전비용에서는 상위 점수를 기록했다. 앞서 광양, 나주, 구례, 완도, 진도, 신안 6개 시·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이 21곳(신축부지 15곳·리모델링 6곳)을 이전 부지로 신청했다. 연 10만여 명이 이용하는 공무원교육원이 들어서면 지역 경제에 적지않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교육원 이전 비용은 약 5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현재 광주시 북구 마곡동 공무원교육원 부지의 건물 활용 방안은 추후 논의된다. 전남도는 향후 교육원 이전 추진 전담팀을 구성해 2016년 12월 말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18년 1월께 공사에 들어가 2020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文·安 '야권재편' 주도권 싸움 시동

새정치 주류측, 최재성 불출마 선언...인적쇄신 본격화
비주류, 문재인 사퇴 촉구...황주홍·문병호·유성엽 탈당
안철수, 광주·전북 방문 인재 영입 원칙 제시 '민심잡기'

연말연시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야권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새정치연합 주류 세력은 인적쇄신 등을 통한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 비주류 진영에서는 문 대표의 사퇴를 재차 요구하는 가하면 연세 탈당에 나서는 등 주류 진영과 정면충돌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안철수 의원은 호남 방문을 통해 야권 재편의 바람몰이에 나서고 있으며 천정배, 박주선 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 등 신당 추진 세력은 통합 신당 추진을 위한 물밑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주류 진영의 핵심인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안철수 의원 탈당 사태 이후, 문재인 대표가 '혁신을 통한 공천 혁명'을 선언한 데 이어 최 본부장이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 '주류발(發) 인적쇄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 본부장은 총선거획단장 후보로 거

론되는 등 실질적으로 공천 혁신의 칼을 휘두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당 지도부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인 정채위의장 선임과 함께 전략공천위원장, 비례대표세력 TF(태스크포스)팀장, 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장을 임명하며 공천 작업 관련 인선에 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에 맞서 당내 비주류 진영에서는 연세 탈당과 함께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재차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우선 문병호, 유성엽, 황주홍 의원은 이날 국

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새정치연합을 떠나야 야권의 대통합과 대혁신, 승리의 길을 가겠다"며 "이런 뜻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야권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복귀 불가를 재확인한 데 이어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다시 요구했다. 김한길 전 공동대표도 문 대표에 대한 정면 비판 모드를 이어갔으며 구당 모임에서는 문 대표의 사퇴와 비대위 구성을 촉구하는 등 비주류 진영이 탈당의 명분 쌓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전북과 광주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호남 민심 바람몰이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광주를 방문, 자신의

내년 총선 목표는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야권의 외연 확장과 통합,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상 야당은 독자적으로 집권한 적이 없고 항상 연대를 통해 집권했다"면서 "집권을 위해서는 야권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당 추진 세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야권재편을 고민하는 분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신당을 추진중인 천정배, 박주선 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지사 등도 안철수의 원과 야권 신당 창당을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설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미국 '제로금리' 마감...9년 6개월만에 0.25%P 인상
미국이 마침내 금리인상을 단행.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년 동안 유지했던 '제로 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관련기사 2면>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명의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16일(현지 시간) 공식 발표했다. 2006년 6월 이후 9년 6개월만의 첫 기준금리 인상이다. 연준은 성명에서 "올해 고용 여건이 상당히 개선됐고 물가가 중기목표치인 2%로 오를 것이라는 상당한 확신이 있다"며 금리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동·남선거구 안돼" 광주 남구 주민들 국회 항의방문

주민 9만221명 서명부·건의문
국회의장·여야 대표에 전달

내년 4·13총선 선거구 확정과정에서 일부 지역이 광주시 동구와 합쳐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광주시 남구 주민들이 국회 항의방문에 나섰다. 이번엔 서명운동에 동참한 주민은 9만 221명으로, 남구 인구 22만1600명(지난달 말 기준)의 40.7%를 차지하는 숫자다. 또 선거구인수 17만7519명의 50.8%에 해당된다. 주민들의 국회 항의방문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지난달 24일 주민들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국회 정개특위의 여야간사인 김태년·이학재 의원 등을 연이어 만나 선거구 조정에 반대하는 서안을 전달했었다. 추진위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간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불공평한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뒤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번엔 서명운동에 동참한 주민은 9만 221명으로, 남구 인구 22만1600명(지난달 말 기준)의 40.7%를 차지하는 숫자다. 또 선거구인수 17만7519명의 50.8%에 해당된다. 주민들의 국회 항의방문은 이번이 두번째로 묶는 선거구 확정안은 광주의 역사성과 주민의 이익을 전혀 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게리멘더링'이라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또 "선거구 확정안은 여·야 정치적 협의로 조정이 가능하다. 광주의 장기발전과 구간 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 획정이 '동구-남구'에서 '동구-북구'로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땐 보다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는 그간 '동구-남구'를 하나로 묶는 선거구 확정안에 반발, 긴급연석회의 및 올바른 선거구 획정을 위한 대토론회 등을 진행했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이홍재의 세상만사 ▶2면
신팔도유람 - 부산은 맛있다 ▶18면

2016 완도 해맞이 축제

2016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서 해맞이 축제를 개최합니다.
다양한 해맞이 축제 프로그램으로 새해를 여는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서
힘차게 솟구치는 일출을 감상하며 새해 소망과 희망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 행사명 | 2016 완도 해맞이 축제
| 일 시 | 2016. 1. 1.(금) 06:30 ~ 08:00
| 장 소 | 완도 다도해 일출공원 일원(완도타워)
| 내 용 | 신년덕담, 민요공연, 소망 풍선 날리기